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선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일상의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새한나

# 일상의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선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새한나

# 인 준 서

김재한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전시 명 『아무것도 아닌 듯 모든 것』 이란 2009년 본인의 개인전 작품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일상의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감정표현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해 본 것이다.

예술가는 평범한 대상들에게 정신성을 부여하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의 교감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와 형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기존의 것들에 대해 쉽게 지루함과 권태감을 느끼고 시간에 쫓기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이라는 단어의 인식은 의미 없는 사건들의 반복이다. 하지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일상을 다시 한 번 바라보았을 때 평범하고 지루하게만 생각되고 느껴졌던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한 일상에서 평범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여러 심리적 감정 상태에 대해 크게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은 직접 경험하거나 마음으로 느낀 심리적 감정상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주제에 접근하였으며 누구나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대상들에 대한 인간의 잠재적 본질에 대한 감정, 기억 이미지의 형상화이다.

예술작품은 곧 작가 자신이 삶에 관심을 갖고 경험하고 표현을 이끌어냄으로써 탄생되는 것이다. 우리는 감성적 제반 상태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감성적인 감정들을 기억에서나마 고정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억 적 이미지에 대해 본인의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일상으로부터 비롯된 감정들에 접근하면서 작업을 이루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설명하고 조형언어로 재해석시켜 미적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현대인들의 일상 속 감정의 경향 .....	3
2. 기억 이미지의 근원 .....	6
3. 회화에서 나타나는 기억이미지 .....	9
4. 기억의 내적 조형화 .....	15
5. 작품분석 .....	18
III. 결론 .....	32

## 참 고 도 판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결점과 흠집들, 227.3x181.8cm, 캔버스에 과슈, 2009 .....	18
【작품 2】	언제나 따뜻하게 흐르길 바랍니다, 227.3x181.8cm, 캔버스에 과슈, 2009 .....	20
【작품 3】	a scene, 145.3x162.2cm, 캔버스에 과슈, 2009 .....	22
【작품 4】	키우다, 72.7x90.9cm, 캔버스에 과슈, 2009 .....	24
【작품 5】	특별한 H, 130.3x193.9cm, 장지에 채색, 2009 .....	26
【작품 6】	그녀의 방, 80.3x100.0cm, 캔버스에 과슈, 2009 .....	27
【작품 7】	그녀의 방, 80.3x86.0cm, 장지에 먹, 2009 .....	27
【작품 8】	H, 60.0x60.0cm, 장지에 먹, 2009 .....	30

## 도판 목차

【도판 1】 프리다 칼로, 헨리포드 병원

Oil on canvas, 30.5x38.0cm, 1932

【도판 2】 프리다 칼로, 물이 나에게 주는 것

Oil on canvas, 91.0x70.5cm, 1938

【도판 3】 루크 토이만스, The Perfect Table Setting

Oil on canvas, 131.0x158.0cm, 2005

【도판 4】 루크 토이만스, Mayhem

Oil on canvas, 187.0x291.0cm, 2003

# I. 서론

일상은 개개인에게 모두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속시켜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개개인의 삶 속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서로 다른 개성들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며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또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서로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며 우리는 일상적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애매한 감정들을 또 그 속에 고스란히 남겨진 기억이미지들을 경험하게 된다. 예술이 삶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술 활동은 일상 속의 삶에서 미적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이며 인간 감정의 표현이다. 예술창조에 관한 이상주의 학설에 따르면, 작가는 자기 작품의 모든 결정적 전제조건을 스스로 안에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작가 본인의 경험과 감정으로 평범한 대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작가 나름의 시각으로 역사와 시대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

슈만(Schumann)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불을 비춰 주는 것이야말로 예술가의 임무라고 했다. 또 “화가는 모든 것을 그리고 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이러한 특권으로 작품을 창출해 내며 인간의 대리자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의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감정표현을 작업의 동기로 삼았으며, 본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을 통한 내재 심리의 표현 의미와 작업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 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현대인들의 일상 속 감정의 경향성에 대하여 논하고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와 상황이 일상 속에서 어떠한 기억으로 내재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또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미적경험과 기억 속 흔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근원에 대해 논해보고 예술과의 관계와 그 영향력에 대하여 모색하고 회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심리적 공간으로 내적 조형화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을 통하여 이론적 개념을 연구하고 얻은 이론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앞으로 본인의 작품이 더 많은 것들과 정신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본다.

## Ⅱ. 본 론

### 1. 현대인들의 일상 속 감정의 경향

현대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일상 속에서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사회나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經驗, experience)하게 된다.

감정(feelings)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전율감, 아픔, 고통, 흥분, 쓰라림, 갈망, 쭈심, 오한, 충만감, 메스꺼움, 열망, 오싹함, 허탈함, 긴장, 가책, 충격 등을 일체 포함한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일어난 감정을 표현할 때면, 연민의 정이니 놀라운 충격이니 기대감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한다.<sup>1)</sup>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도시의 일상은 서로의 무관심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더 황폐하게 한다.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일상 속에서 불안정한 자아개념을 지니게 되며 결국 고독감, 권태감, 공허함, 외로움 등의 불안한 감정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불안(不安, anxiety)은 신체 내부 기관의 흥분으로 생기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이며 어떠한 특정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려운 감정이다. 또한 공포감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불안은 불가피하게 우리 삶의 일부를 이루며 늘 새롭게 변화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동반한다.

불안감을 표현하는 작품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최근 현대인들의 일상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중요한 예술작품들은 모두 공공연히, 또는 간접적

---

1) 길버트 라일 [Gilbert Ryle]. 이한우 역, 『마음의 개념』, 서울:문예출판사, 1994, p.104

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연극, 영화, 문학, 철학의 거의 영속적인 <위기>속에서 다른 작품들의 성공이야 어떻게 간에 이런 성격의 작품들만이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사다스틱(sadistic)<sup>2)</sup> 한 꼼꼼함으로 일상성을 묘사하고 그것을 검게 칠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외관상의 만족을 야기하고 확인하는 장치들을 보여줌으로써 만족 속으로 사라져가는 비극을 되살리려 한다. 문화에서부터 남은 것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화인 것의 밖에서) 이 사회의 내재적인 불안은 또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 또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sup>3)</sup>

이런 사회적 현상 속의 강박관념은 대화, 의사소통, 참여, 통합, 결집 등으로 볼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고독과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불만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수다 속의 고독이고, 지나치게 많은 기호들 속에서의 의사소통의 부재이다.<sup>4)</sup>

“우리는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상태가 자기에게 과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비해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태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며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sup>5)</sup> 는 이야기하고 있다.

---

2) 사다스틱[sadistic]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며 쾌락을 느끼는 부류.

3)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세계일보 1990, p.127

4) Ibid., p.250

5)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 독일의 실존철학자. 주요 저서는 《존재와 시간》이다. 그가 실존사상의 대표자로 간주된 것은, 이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 부분 때문이다. 불안·무(無)·죽음·양심·결의·퇴락(頹落) 등 실존에 관계되는 여러 양태가 매우 조직적·포괄적으로 논술되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경험의 핵심들 속에는 소중한 안전하며 사랑 받는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이 욕구는 인간 깊은 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타인과의 부족한 교류와 의사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며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반복하기 때문에 심각한 내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며 더욱 더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내적 문제는 소외에 대한 불안이며 이 같은 내적 문제는 타인과의 상호관계의 냉담함과 사회 부적응, 또는 자기 소외감으로부터 초래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현대인들은 더 많은 강박관념과 불안이라는 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2. 기억 이미지의 근원

노먼 맬컴(Norman Malcolm)<sup>6)</sup>은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늘날 ‘기억(memory)’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컴퓨터 공학의 메모리, 유전자생물학에서 쓰이는 메모리 등의 예에서 보듯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영어의 ‘memory’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앵글로-색슨어 ‘gemund’에서 유래된 말로 gemund은 원래 mind(마음)의 의미라고 한다. 어쨌든 전형적인 의미에서 기억이란 과거에 경험한 일들을 회상하고 이러한 일들에서 학습된 여러 사실과 관념을 마음속으로 다시 가져와 상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 기억이란 현재의 도움으로 과거를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다.<sup>7)</sup>

우리는 경험에 의해 우리들의 감정, 행동 등이 변화하는 것을 알고 있다. 기억은 인지기능의 핵심적 요소이며, 과거경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고 느끼는 모든 자극들은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장소에 가고 더 많은 사실들을 알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그것들을 계속 저장해 간다. 본인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記憶)은 일화 적 기억(episodic memory -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과거의 사건, 사실, 상황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두뇌의 메커니즘(mechanism)<sup>8)</sup>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물을

---

6) 노먼 맬컴 [Norman Malcolm 1911~1990] 미국 철학자.

7) 양병환 외 10명, 『기억』, 하나 의학사, 2001, p.7

8) 메커니즘(mechanism)-<심리> 어떤 행위를 성취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심리과정,

접하지만 그 중 일부만 기억을 한다. 두뇌는 감정과 관련된 기억에 굉장히 민감하며, 감정적인 상태에서 경험하는 상황은 더 기억될 확률이 높다.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변화는 우리가 강렬한 감정을 느꼈을 때 모든 신경을 활성화시켜 사소한 내용도 기록되도록 한다.

한 개인의 기억수행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개인 내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사상들 중의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모호하게 기억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완전하게 망각되어 버린다. 더 잘 기억되는 것은 보다 지속적이고 강한 기억흔적을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흔적 소멸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더 잘 기억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sup>9)</sup> 기억흔적(記憶痕跡)은 자기 자신의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 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기억이미지들은 자신의 성격, 성향, 자아개념 등을 반영한다.

우리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특정사건으로 인해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접한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며 우리는 일상적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애매한 감정들을 또 그 속에 고스란히 남겨진 기억이미지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적으로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기억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개인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감정의 이미지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강한 경험으로 인해 남겨진 기억흔적들은 많은 시간이 지나도 무의식 중에 남아있게 되며 남겨진 기억 적 이미지들은 작품으로 형상화 된다. 이러한

---

환경에 적응하고 자아를 방어하며 욕구를 만족시키고 혼란을 해결하는 심적 기제로, 정신 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 방어 수단을 지칭한다.

9) 양병환 외 10명, 『기억』, 하나 의학사, 2001, p.53

기억이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형화 시키느냐 하는 것은 작가의 몫이다. 기억적 이미지들은 일상 속에서 발췌된 것이며, 본인의 과거의 경험에서 기억된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작가의 기억은 작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은 내면 깊숙이 잠재된 수많은 사건과 감정들 중 특정한 기억들을 본인만의 선택된 이미지로 화면에 표출한 것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3. 회화에서 나타나는 기억이미지

“화가는 더 이상 하나의 지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는 환영을 빚어내거나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 즉 이미지 제조자가 아니다. 그는 어떤 특수한 언어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특수한 어휘와 그 소통 가능성을 취해서 또 다른 언어로 말해야 한다.”라고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t)<sup>10)</sup> 는 말했다.

참된 예술작품은 비밀로 가득 차고 수수께끼 같은 신비스런 방식으로 ‘예술가에 의해’ 생겨난다. 예술작품은 예술가로부터 분리되어 자립적인 생명을 획득하며 개성화되고, 정신적인 호흡을 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물질적인 현실생활을 영위하며, 하나의 실체(wesen)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은 무관심하게 우연히 생겨난 현상도, 또한 정신생활 속에 무관심하게 머물러 있는 현상도 아니며, 다른 모든 실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창조하는 능동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예술작품에 예술가들은 시대와 역사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 속에 묻어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작품에 반영하고 감상자들에게 전달한다.

예술은 정신적 생활에 속해 있으며 예술은 가장 강력한 대리자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 등이 모든 소재를 형성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는 이것들이 중요하다. 예술 활동 또한 자아의 삶과 일치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은 기억(memory)과 경험(experience)이라는 두 개념에 의해 창출되는 인간의 감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삶 속의 감정 활동인 경험과 기억들은 수많은 내적 갈등으로 나타난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혼란과 불안정한 자아

10) 클로드 비알라 [Claude Viallat 1936~] 프랑스 현대 화가.

11) 바실리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75, p.126

개념은 불안의 원인 속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는 고독이나 불안은 예술작품에 있어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 인간내면의 심리나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회화사를 살펴보면, 근대 이전의 회화에서는 재현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때의 이미지는 사물의 외관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회화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들은 상상적 결합에 의한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이며 또한 표현적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적 이미지들은 낭만주의(浪漫主義, Romanticism)<sup>12)</sup>, 표현주의(表現主義, Expressionismus),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 Surrealism)<sup>13)</sup> 그리고 70, 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sup>14)</sup> 회화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회화 속에서는 은유, 상상, 상징들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회화 속 이미지들은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닌 내면의 표현, 일상적 삶의 시간을 보여주는 표현들, 역사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표현수단으로 오토마티즘(Automatisme)<sup>15)</sup>을 사용한다.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것이나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

12) 낭만주의 [浪漫主義, romanticism]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유럽 전역과 그 문화권인 남북 아메리카에 전파된 문예사조 예술운동.

13) 초현실주의 [超現實主義, surrealism]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의 문학·예술사조.

14)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 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이다. 모더니즘이 비교적 단순한 요소로 이루어진데 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시키거나 이전 작품을 새롭게 인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탈 중심 사고, 탈 이성적 사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다.

15) 오토마티즘 [Automatism] 무의식적 자동작용으로 심미적인 선입관이나 기성의 표현 기술을 떠난, 무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이다.

있다.

내재된 감성과 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작가로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sup>16)</sup> 를 들 수 있다. 프리다는 다양한 특징을 지니는 자기중심적인 작품을 많이 그렸고 내면의 솔직한 고백을 하듯 경험으로서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녀는 “나의 그림은 달력의 삽화를 위해 나의 아버지가 끼워 놓은 종류의 사진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바깥세상의 현실이 아니고 나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리얼리티를 그린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녀는 사고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치유의 개념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세 번의 유산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또 한 번의 고통이 찾아온다. 이러한 고통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작업세계의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다.

【도판 1】 작품 [헨리포드 병원] 에서 프리다는 시트에 누워 피를 흘리며 리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리본은 탯줄을 의미하며 이 리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유산 당시의 감정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프리다는 기계(機械)와 관련된 것은 고통과 불행을 뜻한다고 했었다. 이 말을 생각하면 작품에서 침대 아래쪽에 있는 기계는 굉장한 파괴력으로 오는 자신의 고통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듯하다. 또 달팽이는 유산이 진행되는 느릿느릿한 속도를, 보랏빛 난초는 추출된 자궁을, 주황색 형상은 여성의 내부 등 여러 가지 상징적 이미지를 이용해 화면을 구성하였다.

또 프리다의 작품 【도판 2】 [물이 나에게 주는 것] 은 프리다의 작품 중 가장 초현실주의적 요소가 잘 나타나 있는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보

---

16) 프리다 칼로 [Magdalena Carmen Frida Kahlo y Calderon 1907~1954] 멕시코의 서양화가. 자신의 삶의 고통을 멕시코적 전통에 실어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면, 프리다가 살아오며 겪은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형상들로 가득하다. 오른쪽 초록 잎 사이로 프리다의 부모가 내다보고 있으며, 왼편에 물에 잠겨 떠다니는 민속의상은 프리다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물이 프리다에게 준 것은 객관적 세상이 유보된 상태가 주는 위로였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마음의 눈앞을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이미지들 사이에 자신의 판타지를 끼워 넣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환상적인 작품인 이 그림에서도 프리다는 지상에 머무른다. 그녀는 사실상 가장 직설적이고 솔직한 방법으로 ‘현실적’ 이미지를 그렸다. 각각의 디테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프리다는 알고 있었다.<sup>17)</sup> 프리다의 작품은 그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그녀의 작품들은 경험적 고통의 기억을 예술적 미학으로 시각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리다의 작품에서 보여 지듯이 초현실주의는 현실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기억적 이미지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내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심리상태나 기억 또는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것들에 대해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적으로 분석 되는 인간의 내적 세계의 표현인 것이다.

또 기억 적 이미지들을 작업과 상관시키는 작가로 벨기에 출신의 루크 토이만스(Luc Tuymans, 1958~)가 있다. 그는 현재 동시대 유럽작가들 중 가장 존경 받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기억과 현실에 선 회화를 말한다.

루크 토이만스의 회화는 기억과 망각에 관한 서사이다. 기억은 영원히 망각될 수 없는 현실의 비극들을 말하며 그는 참혹한 역사적 비극들을 바로 어제의 기억처럼, 생생한 일상의 경험처럼 표현한다.

---

17) 헤이든 헤레라[Hayden Herreral]. 김정아 역, 『프리다 칼로』, 서울민음사, 2003, p.335

루크 토이만스는 기억 이미지들의 감정 상태를 색감으로 많이 드러낸다. 그의 작품 【도판 3】, 【도판 4】를 보면 창백하고 스산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뜻한 색은 찾아보기 힘들며 냉정하고 위협스러운 느낌으로 가득하다. 루크 토이만스는 평범한 언어들이 아닌 절제된 색과 어두운 면들을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기억과 그림에서 보여 지는 기억들을 어떻게 상관시키는지 의도하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기억 이미지들을 새로운 언어로 조형화시키며 관람자와의 소통을 의도하고 있다. 【작품 3】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색을 무언(無言)의 색조를 사용해 냉정하고 창백한 느낌을 주었다. 또 반대로 코발트 블루의 강한 색을 화면에 대조시켜 극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들은 앞에서 언급한 현대인들의 강박관념과 불안이라는 내적문제를 색조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작품4】에서는 화분의 형태를 정확하지 않게 뿌옇게 처리해 극단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의 감정을 의도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작품은 여백과 무언의 색조가 많이 사용되어 인간의 내적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다.

루크 토이만스는 2004년 7월 아트 매거진의 인터뷰에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조용한 그림이야 말로 좋은 그림이다”라고 설명했다. 순간의 감정과 기억 적 공간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순간의 철저한 조용함을 느끼게 해준다. 루크 토이만스의 그림들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보았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그림 속의 이미지들은 구체적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감정적인 상태의 기억 분출을 추구한다.

이렇듯 경험에서 기억되는 이미지들은 본인만의 형태와 색채의 결합으로 생성된 또 하나의 언어인 것이다. 이것은 유기적인 정서와 감정의 색조까지 느끼게 한다.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기억 이미지들의 상징은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사물의 관념을 표현한다. 또한 정신적 이미지를 포함한 기억 이미지로 화면에 구성된다. 다시 말해 작가와 정신적 호흡을 하며 이미지들은 화면 속에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 4. 기억의 내적 조형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과학자는 관찰(observation)이라는 구체적인 지각양태로 보며 예술가는 관조(contemplation)라는 미적 지각의 양태로 본다. 이러한 미적 지각은 본인의 미적 경험에서 오는 어떠한 대상이 객관적 인상으로 나타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의 작업으로 전개된다.

프랄(D.W. Prall)은 미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진 반응”이라 정의하였다. 작가에게 미적 경험이란 심리적 삶의 경험과 감정들을 기억하고 재현하고 또 해석 순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경험으로 인해 기억된 이미지들은 작가의 자아상징으로서의 이미지들이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시간, 감정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 이미지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으며 본인과 비슷한 감정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 기억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

작품의 소재가 되는 기억 이미지는 삶 속에서 일어난 갈등으로부터 야기된 인간의 감정과 상처를 표출해 조형화 시킨 것이다. 회화는 형상과 색채를 통하여 표현되는 본인의 언어로써 일상성 속에 내재된 본인의 잠재된 기억들을 미적 경험을 토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일상의 미적 경험들은 적절하게 정향되고 구조화될 때 진정한 미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sup>18)</sup>는 시간은 외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

18) 임마누엘 칸트 [ Immanuel Kant, 1724~1804 ] 독일의 철학자. 서유럽 근세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전통적 형이상학을 비판하며 비판철학을 탄생시켰다. 저서에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등이 있다.

주관적 감정에 있다고 하였다. 우리들의 경험을 체계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인간은 개체적 삶 속에서 시간의 경험을 통해 현재에 이르며 과거의 기억을 통해 경험을 구체화 시킨다. 인간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기억 속에서 또는 마음속에서 재생될 때 현재의 연관된 계기 속에 본래 기억하고 있던 사건들과 함께 재생이 된다. 이를 연상 작용(聯想作用)이라 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물 또는 감정이나 마음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연상 작용은 수많은 예술적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처럼 연상 작용을 통해 기억이라는 불연속적 인상을 공간에 조형화 시키는 것이다.

개인적 감정과 기억을 통해 구성 되는 회화 작품들은 본인에게는 일종의 치유의 개념이다. 어떠한 나쁜 기억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며 치료효과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흔히 심미적 경험에 포함되는 감정들은 양극성에서 다소간 완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도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라면 기피할 감정들을 환기시키는 일부 작품을 환영한다. 공포, 미움,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연극이나 회화에 의해 유발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비극의 문제와 추(醜)의 역설은 고대와 현대의 프로이트 주의자들을 위해 주문된 것이었고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비극은 우리에게서 억압되고 숨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배설시키거나 혹은 실제의 공격으로 인한 파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양의 백신을 주입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예술은 좋은 실재를 대체하면서 또 나쁜 실재를 막기도 함으로써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갖게 된 것이다.<sup>19)</sup> 심미적 경험 안에서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거나 하는 감정들은 본인의 공간구성 안에서의 감수성의 한 양태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작가 본인의 심리

---

19) 넬슨 굿맨[Nelson Goodman]. 김혜숙, 김혜련 역, 『예술의 언어들』,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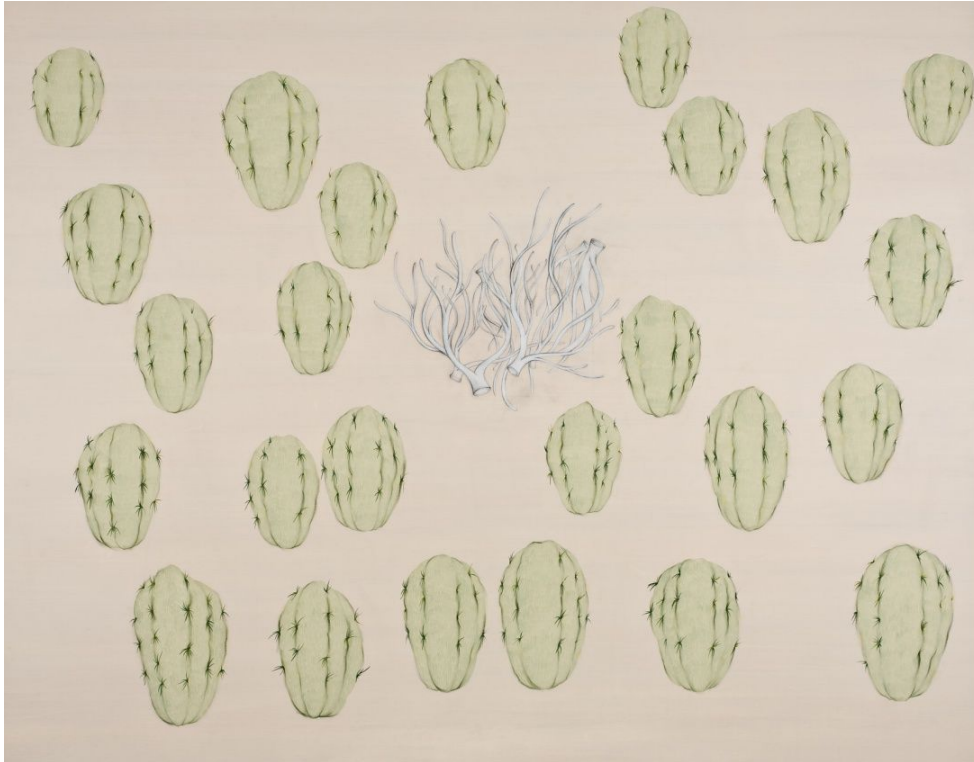
적인 고백이며 치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심리적인 감정과 거기에서 오는 기억 되는 것들을 미적 경험을 통해 조형화시켰다.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표명되기 힘든 감정이나 분위기, 좀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자괴(自壞)감 같은 경험적 감정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선택해 조형화 시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모호하고 날카롭고 허망한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온 무수한 본인의 감정들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공간은 과거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억들이 끊임없이 끊어지고 이어지며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본인만의 공간 속에 심리학적으로 자기 지키기(Selbstbewahrung)와 자아경계 긋기(Ich-Abgrenzung)의 힘을 과도하게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기제는 작품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작품은 이러한 요소를 소재로 내면 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감정 상태를 조형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작품분석



【작품 1】 결점과 흠집들 227.3x181.8cm 캔버스에 과슈 2009

## 【작품 1】

작품제목: 결점과 흠집들

작품크기: 227.3x181.8cm

작품재료: 캔버스에 과슈

제작년도: 2009

【작품 1】은 결점과 흠집들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일상적 삶 속의 경험 속에서 본인이 느낀 감정들이 표출된 작품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오는 황폐한 마음과 그로 인해 생겨난 본인의 결점이나 마음의 흠집들을 표현하였다. 불안정한 자아 개념과 공허함 외로움 등의 불안한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가운데 여러 가지 줄기로 엮어져 있는 이미지는 두 개의 심장이 만나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개인주의로 인한 무관심 속에서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은 상징적 이미지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 겪게 되는 상처와 자괴감은 선인장이라는 식물로 화면 속에 뿌리를 내린다.



【작품 2】 언제나 따뜻하게 흐르길 바랍니다 227.3x181.8cm 캔버스에 과슈 2009

## 【작품 2】

작품제목: 언제나 따뜻하게 흐르길 바랍니다

작품크기: 227.3x181.8cm

작품재료: 캔버스에 과슈

제작년도: 2009

이 작품은 본인의 삶 속의 미적 경험으로 기억 되어진 여러 이미지들의 나열이다.

주제가 된 시계는 시간적 이미지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과거에서 오는 기억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시간적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본인이 의미하는 심리적인 시간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이며, 인간의 의식을 전제로 한다. 시계의 시간은 기계적인 바늘로 시간의 진행을 알려 줄 뿐이다. 하지만 작품 속 시계는 심리적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계 속 기계적 바늘은 없다. 시간은 외적 세계가 아닌 주관적 감정에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본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시계를 중심으로 떠있는 여러 이미지들은 기억 속 한곳에 자리한 내적 기억의 중요한 상징적 이미지들이다.



【작품 3】 a scene 145.3x162.2cm 캔버스에 과슈 2009

### 【작품 3】

작품제목: a scene

작품크기: 145.3x162.2cm

작품재료: 캔버스에 과슈

제작년도: 2009

이 작품은 타인과의 대화 속 말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反應)이다. 우리는 살면서 강제되지 않은 대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떠오르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은 당황하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서이다.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솔직해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애를 쓴다는 의미이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본인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어떠한 대화 보다 편안한 대화이며,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법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현상 속 강박관념과 타인과의 상호관계의 냉담함, 사회 부적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수다 속의 고독과 의사소통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품 4】 키우다 72.7x90.9cm 캔버스에 파슈 2009

#### 【작품 4】

작품제목: 키우다

작품크기: 72.7x90.9cm

작품재료: 캔버스에 과슈

제작년도: 2009

간헐 공간 속이기에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아니면 죽어버리는 화분 속 식물을 본인과 동일시하며 키워나간다. 이 작품은 본인의 개인적인 기억 속 물건인 화분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분이란 소재는 본인에게 어떤 생명력이 있는 물건이었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진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은 희망이며 행복이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 끊임없는 관심을 받으며 스스로 자라나고 또 하루하루 키워져 나가는 식물은 지루한 일상 속 작은 행복인 것이다.

하지만 감정 없는 냉담한 사회 속에서 감성적인 것들을 화분이라는 사물에 붙여 넣지만 거기에서 또 다시 겪게 되는 외로움과 허망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5】 특별한 H 130.3x193.9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 6】 그녀의 방 80.3x100.0cm 캔버스에 파슈 2009



【작품 7】 그녀의 방 80.3x86.0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 5】 【작품 6】 【작품 7】

작품제목: 특별한 H , 그녀의 방, 그녀의 방

작품크기: 130.3x193.9, 80.3x100.0, 80.3x86.0cm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캔버스에 과슈, 장지에 채색

제작년도: 2009

그녀의 방 시리즈는 장소, 공간(空間)에 관한 작업이다. 장소는 조각 난 것들이며, 내부로 돌아오는 역사이다. 사적인 공간이기에 남들은 읽을 수 없는 과거이며, 펼칠 수는 있지만 이야기처럼 보따리 안에 저장된 축적된 시간이며, 육체의 고통과 기쁨 속에 감싸인 상징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소에 관한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개개인의 시간, 감정, 경험이 머무르는 곳은 각자의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극히 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누구나 경험 속에서 오는 기억 적 이미지들과 장소, 공간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해 있다.

우리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각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에 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장소 속 관계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어떤 장소든 공간이든 방이든 그 속에 그저 신체만으로 존재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곳에는 본인의 감정과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녀의 방 시리즈 속의 상자는 그냥 단순한 상자 안이 아니다. 상자 속 공간에는 인간적인 의미, 온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공간이 인간화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내적 기억을 통해 상자라는 상징물로 조형화 된 것이다.

본인은 이 공간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스스로 만든 공간 안에서 외부와 내부의 연결을 은밀히 들여다본다. 그 속에서 조용히 선인장과 세밀한 나뭇가지, 이것들은 그림 속에 뿌리를 내린다. 본인의 심연 속에서 건져 올려진 추억과 그 기억 속에 세밀하게 녹아있는 감정들과 정서들이 뻗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작품 속 뿌리를 내리는 이미지들은 공간 속에 스스로 정한 규칙으로 정돈한다. 이것들은 본인의 잠재의식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식물은 집요하게 나타나고 강박 관념적 성격을 띠며 화면 속에 구성되고 있다.



【작품 8】 H 60.0x60.0cm 장지에 먹 2009

## 【작품 8】

작품제목: H

작품크기: 60.0x60.0cm

작품재료: 장지에 떡

제작년도: 2009

H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작품 2】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기억 속 이미지들을 하나하나씩 상징적으로 화면에 구성하였고 【작품 7】에서 나타나는 식물표현의 집요한 강박 관념적 성격도 보여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무의식 속에 성격과 성향, 자아개념을 반영한 내재적 표현이기도 하다.

일상적 삶 속의 작은 미적 경험들 속 이미지의 구성인 것이다. 즉, 자라나고 생성되는 식물의 배경 속에 본인의 경험적인 내재적 감수성들을 끄집어 내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의 H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본인의 이름 속 이니셜 중 하나이기도 하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일상 적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감정과 기억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이미지로 조형화시켜 작업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고찰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기억의 이미지는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다. 마음 속 깊숙이 침투해 있는 기억 이미지들은 경험으로 인해 생겨난 개인적인 이미지인 것이다. 화면은 이런 이미지들로 구성되지만 광범위하게 본다면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보고 표현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며 감정을 자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이론적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진실로 감정을 끌어 낼 수 있으며 소통의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을 해 나감에 있어 작가는 마음속의 진실을 표현하고, 보는 이들이 진실로 공유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의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연구’ 라는 논제를 가지고 본인의 작품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현 시대 일상인이 어떠한 문제들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지 또 강박관념과 불안이라는 내적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이러한 내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들과 그로인한 기억 속 모든 자극들의 근원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이런 기억이미지들이 회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프리다 칼로와 루크 토이만스의 작품을 분석해 보고, 본인의 작품에서는 내적문제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조형화되었는지 이론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본인은 예술이라는 표현 방식을 택하여 기억의 확장을 이루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간다. 본 연구를 통해 참나적인 감정과 기억이 가지는 힘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체험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앞으로 본인이 작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표현 가능성을 찾으며 본인만의 언어를 찾는 과정으로서 더욱 발전적인 작업의 방향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참 고 도 판



【도판 1】 프리다 칼로, 헨리포드 병원,

Oil on canvas, 30.5x38cm, 1932



【도판 2】 프리다 칼로, 물이 나에게 주는 것,

Oil on canvas, 91.0x70.5cm, 1938



【도판 3】 루크 토이만스, The Perfect Table Setting,  
Oil on canvas, 131.0x158.0cm, 2005



【도판 4】 루크 토이만스, Mayhem,  
Oil on canvas, 187.0x291.0cm, 2003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양병환 외 10명, 『기억』, 하나 의학사, 2001
- 길버트 라일 [Gilbert Ryle]. 이한우 역, 『마음의 개념』, 서울;문예출판사, 1994
- 나카노 하지무. 최재석 역, 『공간과 인간』, 서울;국제, 1999
- 넬슨 굿맨[Nelson Goodman]. 김혜숙,김혜련 역, 『예술의 언어들』, 서울;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르네 위그 [René Huyghe].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 바실리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75
- 아놀드 하우스[Arnold hauser]. 한석중 역, 『예술과 사회』, 서울;홍성사, 1982
-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세계일보 1990
- 헤이든 헤레라[Hayden Herrera]. 김정아 역, 『프리다 칼로』, 서울;민음사, 2003

## <학위논문>

- 김명숙, 『흔적의 재현을 통한 회화의 시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3
- 이윤정, 『경험적 이미지에 의한 조형공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1

# ABSTRACT

## A Study on the Feeling Expression through the Image in Daily Memory

- Centering around My Work -

Kim, Sae Han Na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was written on the basis of my private exhibition work in 2009 that exhibition name is [everything as if nothing], and it is what tried to examine feeling expression through image in daily memory closely theoretically.

Artists give spirituality to ordinary subjects and say with own language and form through the sympathy of outer experience and inner experience to get to experience while living.

Moderns who live in the period that everyday changes fast feel

tediousness and fatigue sense and live busily bey being pressed for time. With which meaning does routine draw near to us who live in this period?

To most people, recognition of word, routine is repetition of meaningless events. However, what are thought and felt ordinary and tedious in looking at routine once more from diverse directions whether it is objective or subjective get to draw near as what are special and they get to draw near greatly for various psychological feeling state that one may feel ordinarily and easily in routine.

My work approached subject on the basis of image of psychological feeling state that I experienced directly or felt with mind, and it may be referred to as story that anybody may experience and feel. That is, it is making feeling for human potential essence about subjects that one may meet easily in routine, memory image into form.

Work of art is born as artist, himself(or herself) experiences and extracts expression with interest for life. We live in present period while accepting all the sensitive states passively, but we fix the sensitive feelings even in memory.

In this thesis, I analyzed how memorial image to be able to meet in this routine is being expressed in my work on the basis of theoretical side, and try to express aesthetic spirit world by explaining basic thoughts to form work and reinterpreting them with plastic language while approaching feeling originated from routine.